

北, 사실상 계획경제·배급제 포기

美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6·28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

공무원·교육·의료부문 종사자만 국가 배급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 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소식통은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 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

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했다.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RFA는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날짜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새 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광욕 즐기는 북 여성들

북한의 젊은 여성을 비롯한 주민들이 평양 능라인민유원지에 있는 능라물놀이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연합뉴스

北 쌀값·환율 지속 상승

'김정은 체제' 주민 불안심리 반영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 안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지난

해 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급등했다.

작년 9월 1kg당 2400~2500원, 1달리당 2800~3000원에 이르던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김 위원장이 사망한 12월에는 각각 4500원과 5000원 선으로 치솟았다. 김 위원장의 급사에 따른 불안이 증폭된 것이다.

이후 올해 2월 1kg당 3100원, 1달리당 3700원으로 다소 진정됐던 쌀값

과 환율은 다시 상승, 6월에는 3600원과 4800원에 이르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쌀값이 5000원대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 개선 또는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식량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6월까지 지속된 가뭄과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쳐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009년 단행했던 화폐개혁 실패의 트라우마로 외화 선호 현상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사 없다' 청와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은 올 8·15 광복절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에는 광복절 사면 계획이 없다"면서 "광복절 사면은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것을 지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올해 8·15 사면이 단행되지 않는 것은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中 김영환 고문 국제 사회 알리겠다"

대책위 "이달내 유엔에 청원서 제출"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이달 내에 전기고문과 관련된 청원서를 유엔에 내기로 했다.

'김영환 고문대책위'는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의 서울 종로구 옥인계 시흥남재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새 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했다. 최후대 대책회의 대변인은 "중국이 1주일 내에 공명정당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김씨의 고문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증언이 교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내에 김영환 씨 전기고문에 대한 청원서' 유엔의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 및 처벌에 대한 특별보고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씨의 정밀검진과 관련해 "범의하자 등 전문가의 소견을 최대한 빨리 받아 정밀검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김씨가 받을 예정인 심리치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트라우마'가 발견되면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씨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 그는 "9월10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미 이사회 진행순서와 발언자 등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김씨의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내현, '컨택터스' 변호 전력 논란

2010년 나주 3M 노조원 폭행사건... 민주 곤혹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SJM 노조원 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또 다른 폭력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임내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컨택터스 사건도 대표 등 직원 7명이 2010년 나주의 한국3M 공장에서 노조원을 폭행해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은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임 의원 측은 "당시 변호사였던 임 의원이 컨택터스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쌍방 폭력사건인 줄 알고 맡아 한 것"이라며 "범죄자라고 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되느냐.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SJM 노조 폭력사태에 대해 대외 공세에 나선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SJM 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광주일보에는 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임 의원이 SJM 노조원 불법폭력으로 물의를 빚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또 다른 폭력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임 의원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 '공천헌금' 서청원 변호 물의

32억 수수 사건 변호인단 포함... 비판론 일어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해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또 문 후보는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 등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후보 측은 9일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며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부패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문 후보가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비판론이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월곡동(블링) 대1787㎡, 감정가 22억, 최저가 12억9천	쌍암동(대지) 대1787㎡,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9억9천	치평동(모텔) 대124㎡, 2715㎡, 감정가 16억, 최저가 8억2천	화순오곡(근린시설) 대83234㎡, 244280㎡, 감정가 49억3천, 최저가 12억1천	화정동(역시점) 대1094㎡, 24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장성향행(공원) 대3398㎡, 801㎡, 감정가 15억, 최저가 6억7천	도산동(교회) 대772㎡, 2378㎡,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4억2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비오공정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 봉동(대형공장)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70억 (협의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동(목욕탕) 대지 91평 >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문동(하이소포텍)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산동(주유소) 대지 230평 > 건물 105평 감정가 15억5천 매매가 11억 (협의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 (공장) 대지 1999평 > 건물 687평 감정가 25억 매매가 17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삭이실/상가 김구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입)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다구주택(원룸, 투룸, 소리룸)

(토지구입)

- 지역: 광안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농지, 용도: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자연농지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임료 20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농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안구 도천동 자연농지지역 2397㎡(725평) 평당 96만원
- 공정 최고용도 적합
- 비오동 자연농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68949.co.kr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면적 : 460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1600만원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주유소 매매 (동구)

-대 지 : 300평
-최고 매출
-매매가 상담후 결정

침단잔단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투자자 모집니다

1억 - 5억 투자자 모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원동, 대인동 소재사건내)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알선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해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원동, 대인동 소재사건내)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원룸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국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 보종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 보종동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가600평(31억)
- 임대보증금 95억 월임 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 상무지구 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환가능)
-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환가능)
-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정일) (회사사용,오피스빌딩 적합)
- 동림지구 준주거지 운암-하남 간대교변 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산정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우편매너 전화 접수입니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영 1층)